

강경화, 北 피살 공무원 형 면담... “최대한 협조하겠다”



北 피살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씨가 21일 서울 오전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진 강경화 장관과의 면담을 마친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사살된 해양수산

이래진氏 7가지 건의사항 전달...외교부 서면 답변 면담서 북한 인권 문제 강력한 항의·성명서 요청 시신이나 유골 송환 위한 中정부와 협조도 당부

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55)씨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오전 10시15분부터 25분간 이씨와 만나 진상조사와 국제사회 공조에 대한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지난 달 22일 사건이 발생한 후 외교·안보 부처 수장이 유가족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씨는 강 장관에게 북한이 비무장 민간인인 동생을 구조하지 않고 해상에서 무참히 살해한 것은 국제사회

가 인정된 ‘국제인권법’ 위반 행위라고 언급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 수립 계획과 강력한 규탄 성명을 요청하는 등 7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23일 상정되는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한 내용, 중국 정부와의 협조를 부탁했다”며 “북한에 관련된 인권 문제에 강력한 항의나 성명서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토마스 오페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

권 특별보고관은 오는 23일 유엔 총회에서 공무원 피격에 관한 사건을 포함한 북한 인권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키타나 보고관은 북한에 책임 규명과 유가족에 대한 보상,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으며, 한국 정부에는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 의무 준수를 촉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씨는 “(유엔 인권총회에서) 보고서 채택되고, 각국의 반응을 봐야할 것이다. 그 후에 외교부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 장관은 제안한 내용을 성실성의껏 검토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로 했다.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시신이나 유골 송환을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조에 대해서는 “강 장관은 (중국에 협조를) 이미 했는데

다시 한번 요청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서 한국이 지난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동제안국 참여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씨는 강 장관에게 정부의 컨트롤타워 및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되지 않은 이유, 현 상황에 대한 외교부 입장과 대응 계획, 해상(해난 사고) 대응 매뉴얼의 국제 규범 수립 계획 등도 물었다.

이씨는 서면 건의사항을 통해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서 끔찍한 살해를 당했는데 외교당국의 대응과 정부의 비현실적인 행위로 월북이라는 프레임으로 성급히 발표했다”며 “정부가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와 사명감을 저버린 행태가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씨는 “사건을 당하고 정부 관료와는 첫 면담”이라며 “공개적으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해군작전사령관, 유엔사령관을 향해 면담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18일 유엔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고문 특별보고관, 건강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강제실종 실무그룹,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등에 보낸 진정서에서 북한이 표류 중이던 한국 공무원을 총살한 것은 국제규범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유엔이 개입해 적극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금태섭, 민주당 탈당 “편가르기와 내로남불...더는 동의 못해”

조국 공개 비판하고 공수처법 기권한 당내 소신과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래서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총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다. 그간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는 전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국민들을 상대로 행사고 소와 민사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이 이끌던 민주당, 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다른 무엇보다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억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거기에서부터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런 해명이 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런 모습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힌다”며 “여야 대치의 와중에 격해지는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 전 의원은 결론적으로 “1987년 대선 때 생애 첫 선거를 맞아 김대중 후보에게 투표한 이래 계속 지지해왔고, 6년 전 당원으로 가입해서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직을 맡으며 나름 기여하려고 노력했던 당을 이렇게 떠나게 되었다”면서 “민주당이 예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를 되찾고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좋은 정당이 되야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지난 20대 국회때 원내에 입성한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논란 때 조 전 장관을 공개 비판해 당내 소신파로 불렸다. 지난해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표결 때는 기권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에 당내 열성 지지층의 비난이 쇄도했고, 지난 6월 공수처법 기권이 당론 위배행위라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은 뒤 재심을 청구했지만 10월21일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뉴스스



창당 8주년 맞은 정의당 김중철 정의당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와 전현직 대표 및 당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창당 8주년 기념식에서 떡 케이크를 자르며 창당 8주년을 축하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들, 김종인 중심 협력키로...지금은 힘 합할 때”

“각자 의견 개진, 토론은 건강한 것...더 큰 힘 응집 과정”

국민의힘이 2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며 “당내 각기 의견을 개진 될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토론하는 과정은 건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며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등 엄중한 상황을 앞두고 갈등으로 비쳐지는 부분들이 당이 선제적으로 변화하고 혁신하기 위한 더 큰 힘을 응집하는 과정으로 보

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모인 분들 모두 목소리를 높여서 내년 재보궐 선거가 중차대한 일이라 지금은 힘을 합할 때다. 위원장 중심으로 더 노력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분위기가 좋았다”며 “박진, 정진석 의원 등등이 (해당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